

WEF Weekly Stories

2025년 2월 27일, WEF 4차 산업혁명센터, 경기도 대한민국

센터 웹사이트: Koreago.net

* 본 자료는 세계경제포럼(World Economic Forum)에서 매주 발간하는 Forum Stories 를 경기도가 세계경제포럼과 함께 25년 1월 설립한 4차산업혁명센터 (C4IR Korea)에서 번역 정리한 것입니다. (Forum Stories 발간일자 : '25년 1월 21일)

지정학적 전망 - 더욱 심화되는 혼란



지정학적 환경의 불확실성

- 국가, 기업, 기관 간 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. 세계경제포럼(WEF) 이사회 의장이자 창립자인 ‘클라우스 슈바프(Klaus Schwab)’는 [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오늘날의 도전 과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](#)고 강조한다.

- 네 명의 전문가들이 세계경제포럼에서 글로벌 협력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공유한다. 또한, 선제적 시각을 유지하고 단기 대응과 장기 전략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[파트너십 강화 전략을 제안](#)한다.
- 전통적인 동맹 관계가 변화하는 가운데, [유럽이 방위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](#). 이에 따라 지출 우선순위에도 변화가 예상되며, 그 배경을 살펴본다.
-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의 '라디오 다보스(Radio Davos)' 팟캐스트에서는 미국이 "취약함과 회복력이 공존하는 나라"라는 점이 논의되었다. [미국의 과거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어떤 통찰을 주는지](#) 살펴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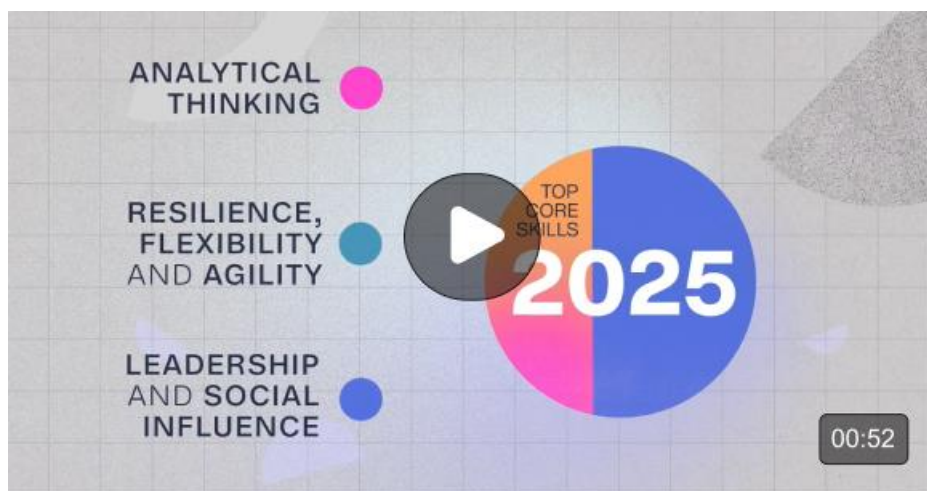
시사점: 혼란과 분열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. 이에 협력 체계를 재정립할 해법을 찾는 것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.

핵심 포인트:

- 올해 세계 지도자들은 수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역량이 요구된다. [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2025년을 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](#).
- 아프리카의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려면 민간 투자를 어떻게 유치하고 확대해야 할까? [세계경제포럼과 글로벌 적응센터\(Global Center on Adaptation\)가 조성한 새로운 플랫폼이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정을 확보한 과정을 조명한다](#).
- 유럽 지도자들에게 자본시장연합(Capital Markets Union)이 다시 주요 의제로 논의될까? 올해 [유럽 통합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](#)과 이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짚어본다.

More

일자리 트렌드와 기술 도입



기술 발전으로 노동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. 지금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무엇일까?

- 기업들이 인력 전략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. 앞으로는 [인재 혁신을 최우선으로](#) 하는 기업이 산업 변화의 미래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.
- 2030년까지 노동 시장이 변화하면서 전체 일자리의 20% 이상이 새로운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. [세계경제포럼의 새 보고서](#)는 공공 고용 서비스의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근로자가 더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5단계 전략을 소개한다.
- 세계경제포럼의 '[2025 미래 일자리 보고서\(Future of Jobs Report\)](#)'는 노동 시장을 재편하는 주요 변화와 이를 이끄는 핵심 기술을 조명한다. [위 영상](#)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과 그 이유, 그리고 미래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을 살펴본다.

시사점: 기술 혁신, 지정학적 분열, 경제적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이 글로벌 노동 시장을 재편하고 있다.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려면 정부와 기업이 인력 운영 전략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.

핵심 포인트:

- 기술 발전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이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, [기술 외의 능력도 필수적이다](#). 다보스 포럼에서 참석한 링크드인의 CEO '라이언 로슬란스키(Ryan Roslansky)'는 "현재 가장 필요한 역량은 대인관계 능력"이라고 강조했다.
-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만, [아동 발달에 미칠 영향](#)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. 수십년 안에 어린이들은 인공지능과 긴밀하게 맞물린 현실을 살아갈 전망이다.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.
- 미래에는 모든 작업 영역에서 추론·학습·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인공지능(AGI)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. [다보스 회의에서 진행된 세션](#)에서는 AGI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.

More

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혁신



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. 금융부터 기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이 녹색 혁명을 앞당기고 있다.

- 미국 전직 대통령 ‘앨 고어(Al Gore)’는 ‘라디오 다보스’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[기후 행동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고 믿는 이유](#)를 설명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축정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.
- 각국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. [정부와 민간 기업 간 협력이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이유](#)를 살펴본다.
- 석탄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36%를 차지하며,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서는 특히 의존도가 높다. [세계경제포럼의 새 보고서](#)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혁신적인 금융 전략을 활용해 석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한다.

시사점: 기후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려면 에너지 전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.

핵심 포인트:

- 운송 부문의 전동화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, 이에 필요한 핵심 금속의 공급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. 이에 따라 [재활용 금속이 전기차 산업의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](#)으로 전망된다.
- 아시아는 경제 성장과 탄소 감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며,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1조100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.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[세 가지 사고 방식 변화](#)에 대해 살펴본다.
- 혁신 기업들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재생에너지를 발굴하고 있다. 미국의 한 [스타트업은 폐유정을 지열 발전소로 전환](#)해 지역 사회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.

4차산업혁명센터 홈페이지



Forum Stories newsletter

Bringing you weekly curated insights and analysis on the global issues that matter.

Subscribe today →